

6

승리한 왕 다윗

시편 18편

찬송가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146장 (목마른 사슴)



1.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2. 다윗이 인생의 모든 역경을 딛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배웁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이시요
 나의 시요 나를 시요 나의 이시요 나의 피할
 시요 나의 시요 나의 이시요 나의 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을 얻으리로다 (시 18:1~3)



을 이해하기

성경에서 위대한 신앙인 중 하나로 우리는 다윗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목동 시절에 기름부음을 받은 후 왕으로서 일생을 마치기 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결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많은 신앙의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귀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았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지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의 손에서, 열방과의 싸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으로 대적들을 엎드리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의 의를 따라 상주시며, 행한 대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심으로 그의 흑암을 밝혀 주셨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힘으로 떠 떠나우시며 손을 가르쳐서 전쟁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평생 동안 다윗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다윗을 넓고, 완전하고,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이였을까요?

공과말씀 정리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행 13:22)

And when He had removed him, He raised up for them David as king, to whom also He gave testimony and said, 'I have found David the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who will do all My will.' (Ac 13:22)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다윗의 주요 일생을 정리해 봅시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골리앗과의 싸움)	
왕이 된 시절	

2

다윗의 삶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적어 봅시다.

3

다윗이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써 봅시다.

4

우리도 다윗처럼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삶 중에서 가장 승리고 싶은 것에는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나의 각오도 정리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1

삼상 16:12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2

삼상 17:45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화

삼상 17:47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word.

Four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prayer.

↑

삼상 18:14

↓

삼상 23:2

↓

삼하 6:21

↓

시 78:72



사탄의 유혹

사탄이 어느 날 한 청년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열 개의 병을 보이면서 “여기 아홉 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 있고, 한 개의 병에만 극약이 들어 있는데 열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마시면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가로 저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지만 생명과 바꿀 수는 없지.”

그러나 사탄은 계속 유혹했습니다. “열 개 중에 하나야. 겨우 하나일 뿐이야.” 계속되는 유혹에 청년은 “그래! 딱 한 번만 하는 거다. 이번 한 번이면 평생 안해도 되테니까.” 청년은 떨리는 손으로 진땀을 흘리며 한 병을 골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야! 내가 살았구나. 자칫 하면 죽을 뻔했어. 자 어서 돈을 내라.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사탄은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고는 “다음 번에 언제라도 아홉 개 중 하나를 마시면 돈을 곱으로 주겠다.”는 말과 함께 웃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청년은 공으로 생긴 돈으로 인한 방탕한 생활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사탄을 불렀습니다.

어느덧 청년은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딱 두 병이 남았습니다.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그 둘 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노인은 마침내 한 병을 마셨습니다. “야! 이겼어. 나는 끝까지 살아남고야 말았다. 내나라 돈. 이것으로 끝이다.” 이 때에 사탄이 남은 마지막 한 병을 훔치고 들어마시며 말했습니다.

“자! 이래도 네가 이겼느냐? 처음부터 극약이란 없었다.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너는 천하보다 귀한 일생을 돈이라는 종이에 팔고 말았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오로지 돈만 알도록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유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한번 허용하면 그 마음이 점점 무디어져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 버립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말씀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질문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려면 왜 아버지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셨는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요 10:30)

성경에는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지칭하신 말씀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동시에 다 들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으로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어서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모두 다 알고 운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약을 먹을 때 그 약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먹는 것도 아닙니다. 몰라도 좋은 약인 줄 알고, 믿고 먹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 임이라 (사 9:6)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 지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별개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을 입은 우리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